

시리즈 쟁탈전 2대2 동률…서울-부경 경마 자존심 싸움 ‘불꽃’



부경의 돌아온포경선은 올 시즌 단거리 최강마를 가리는 스프린트 시리즈 최우수마에 등극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서울-부경 시리즈 최후의 승자는?

퀸즈투어·쥬버나일 시리즈만 남아
서울 ‘청수여결’ 여왕마 탄생 예고
쥬버나일은 공동 1위 4마리 ‘혼전’

렛츠런파크 서울과 부경의 시리즈 경주 쟁탈전이 팽팽하다. 한국마사회는 조건별 우수 경주마 선발을 위해 성별, 나이별, 경주거리별로 6개의 시리즈를 운영한다. 현재 4개가 끝났고 남은 두 시리즈도 마지막 경주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동안 오픈 경주에서는 렛츠런파크 부경이 우세를 보여왔다. 2017년 기준 해외마가 우승한 2개 경주를 제외한 16개의 오픈 경주 중 11개 트로피를 부경이 가져갔다. 특히 한국 경마의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총상금 8억 원의 대통령배(GⅠ)와 그랑프리(GⅠ)는 모두 부경 경주마가 우승했다.

지난해 대결이 부경의 일방적인 우세였다면 올해는 손에 땀을 쥐는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8일 현재 올해 오픈경주 전

적은 부경 7승, 서울 7승으로 서울 경주마가 부경에 뒤지지 않고 있다. 각 분야의 최고 실력자를 선발하는 시리즈 또한 서울과 부경이 각각 최우수마를 2두씩 배출하며 대등하게 맞서고 있다.

3세 국산마의 경쟁인 트리플 크라운에서는 부경의 엑톤블레이드가 코리안더비(GⅠ) 우승, KRA컵 마일(GⅡ) 준우승으로 가장 높은 승점을 누적했다. 단거리 최강자를 가리는 스프린트 시리즈는 부경의 돌아온포경선이 SBS스포츠 스프린트(GⅢ) 2연패와 함께 최우수마 등극까지 성공했다.

국산 3세 암말만 출전할 수 있는 트리플 티아라는 스페셜스톤의 활약으로 지난해에 이어 서울에서 최우수마를 배출했다. 최고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서울의 청담도끼는 스테이 시리즈 세 경주를 석권하며 장거리 최강마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처럼 서울과 부경이 시리즈 최우수마를 나란히 2두씩 배출했기 때문에 남은 퀸즈투어 시리즈와 쥬버나일 시리즈 결과에

따라 어느 경마장이 우세한지 판가름 난다.

퀸즈투어 시리즈의 마지막 경주 경상남도지사배(GⅢ)는 11일 렛츠런파크 부경에서 열린다. 서울의 청수여결이 승점 46점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부경의 해아가 15점 차로 쫓고 있다. 서울은 지난해 실버울프에 이어 또 다른 여왕마의 탄생을 예고하며 암말 경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국산 2세마들의 경쟁으로 신예마를 발굴하는 쥬버나일 시리즈는 서울의 레이먼드, 대완마, 부경의 영광의파이트, 킹삭스 총 4두가 승점 31점씩 누적하며 공동 1위로 혼전 중이다. 12월에 열리는 마지막 관문 브리더스컵(GⅠ)에서 최후의 승패가 결정된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체적인 한국경마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서울과 부경의 자존심이 걸린 승부여서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잘 키운 말 한 마리, 300억 벌어들인다

케이닉스 선발마 브리더스컵 준우승
상금·자마 수익 등 경제적 효과 주목

2일 한국마사회 해외종축사업 케이닉스(K-Nicks)로 선발한 닉스고(수말, 2세)가 경마 올림픽으로 불리는 미국 브리더스컵에서 준우승을 달성했다. 한국경마 사상 첫 브리더스컵 입상으로 한국마사회의 해외종축사업은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국경마 기술력으로 사업성 입증하다

마사회가 2015년부터 시작한 해외종축사업인 케이닉스는 DNA정보를 분석해 어린 시기에 말의 능력을 사전에 예측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사회는 저렴한 가격에 잠재력이 높은 경주마를 조기 발굴해 씨수말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종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한국마사회는 해외종축사업을 통해 구입액(평균 2~40억원)의 1/40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우수 씨수말을 발굴할 계획이다. 초기 투자비용을 대폭 줄여 수익률을 높이고,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해외종축사업을 시작한지 3년 만에 닉스고가 미국에서 태어난 2세마 중 0.2%만이 출전할 수 있는 브리더스컵에서 준우승을 거둬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닉스고는 데뷔 5개월 만에 5개의 경주에 출전해 자신의 몸값의 8배인 약 8억원의 경마상금을 벌어들였다. 닉스고뿐만 아니라, 마사회가 해외종축사업으로 선발한 미스터크로우, 제이에스조이스 등의 경주마

가 이미 몸값을 훨씬 넘는 수익을 거두며 사업성을 입증했다.

●잘 키운 말 한 마리의 경제효과 300억원

닉스고는 브리더스컵 준우승으로 내년 미국의 삼관경주 중 하나로 총상금만 23억에 이르는 켄터키더비에 출전할 예정이다. 삼관경주는 켄터키더비,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벨몬트 스테이크스 경주를 말한다. 여기서 모두 우승하면 삼관마(트리플 크라운)가 된다.

삼관마가 되면 3개 경주의 우승상금만 55억원에 이른다. 은퇴 후에는 씨수말로 활약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다. 2015년 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한 아메리칸 파로아의 경우, 2016년 교배료만 약 2억 3000만원이다. 다음 해 163두의 자마를 생산한 것을 감안하면 연간 수입만 375억원에 달한다.

삼관경주를 석권하긴 쉽지 않지만 현재 닉스고의 성적이라면 최소 1만달러 이상의 교배료로 씨수말 시장에 데뷔할 수 있다. 씨수말이 연간 100회 정도 교배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최소 12억원의 수익이 창출된다.

통상 씨수말이 교배해 자마가 태어나서 경주에 출전할 때까지 4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이후 닉스고의 자마로 벌어들이는 경주 우승 수익(약 150억원)과 자마 경매가(약 120억원, 1두당 5만 달러 가정했을 때 연간 50두를 4년간 판매한 수익), 교배료(약 40억원) 등을 감안하면 최소 300억원의 경제적 효과 창출이 예상된다.

정용운 기자

과천 중독예방 유켄센터 오픈

경마공원 및 각 지사에 설치·운영하는 한국마사회 유켄센터가 2일 렛츠런파크 서울 렉키빌 1층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상담실, 소규모 그룹 활동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들이 자가 중독진단, 건전화교육, 기초상담 등을 받아볼 수 있다. 경마 이용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우울증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과천 유켄센터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상담비용은 무료이며, 유선(080-815-1190)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 인권경영 선포식

한국마사회는 7일 과천 본사 1층 문화공간 홀에서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한국마사회 인권경영선언문은 UN 세계인권선언,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UNGC 10대 원칙 등 인권관련 국제기준을 기본으로 했다. 주요 내용은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강제·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말의 학대방지 및 복지증진, 환경권 등을 담고 있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태극마크 단 엄천호, 베이징 금메달 노린다

〈스피드스케이팅〉

스포츠토토빙상단 소속 자부심 큰 힘

스포츠토토빙상단 소속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엄천호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빙상단에서 활약 중인 엄천호는 지난 10월에 열린 2018~2019시즌 선발전에서 빼어난 성적으로 스피드스케이팅 부문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지난 2011년에 쇼트트랙 종목 전체 1위로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후, 무려 8회에 걸친 발목 수술과 부상 등으로 인해 선수생활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던 엄천호는 스포츠토토빙상단에 입단한 후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종목을 전향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국내 유일의 기업팀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뛰어난 훈련시설과 원활한 장비를 지원해주는 소속팀 환경이 엄천호에게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커다란 계기가 됐다. 또, 같은 팀의 절친한 사이인 김도겸의 아낌없는 조언도 엄천호에

게는 큰 격려가 됐다. 꾸준한 성적이 요구되는 장거리 운동을 즐기는 성격이라고 밝힌 엄천호의 현재 목표는 2021년에 열리는 동계 아시안게임과 2022년에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5000미터 부문의 출전이다.

지난 캐나다 전지훈련을 통해 꾸준한 성적을 올려온 엄천호는 특히 올 시즌부터 스피드스케이팅을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다. 먼저 자만하는 자세를 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 실제로, 국가대표선발전에서도 초반 성적이 떨어져 탈락 위기에 놓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반바퀴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역전에 성공하며 대표자리를 따내는 드라마를 연출했다.

스스로 약점이라고 평가했던 펜달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다. 단, 큰 대회에서 긴장하는 경향 때문에 경기력에 기복이 생긴다는 엄천호는, 체력적으로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다스리는 방법을 찾는다면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농구팬 82% “골든스테이트 승리” 압도적

농구토토 승5패 17회차 중간 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벌어지는 미국프로농구(NBA) 8경기와 국내남자프로농구(KBL) 6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농구토토 승5패 17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약체 브루클린을 만나는 골든스테이트가 82.42%로 이번 회차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팀간 5점 이내 접전 예상은 10.27%로 나타났고, 원정팀 브루클린네츠의 승리 예상은 7.31%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골든스테이트가 홈으로 브루클린을 불러들인다. 디펜딩 챔피언 골든스테이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스테판 커리와 케빈 듀란트, 클레이 톱슨을 중심으로 압도적인 전력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11경기를 치른 골든스테이트의 성적은 10승1패. 서부지구에서도 1위를 기록 중이다. 시즌 초반 올해 최고의 북명인 덴버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내 제 컨디션을 되찾았다.

동부 7위 브루클린도 5승6패를 기록하며 분전하고 있지만 두 팀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전력차이가 크다. 특히 골든스테이트는 2014~15시즌 이후 상대전적에도 8승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열정적인 응원이 펼쳐지는 홈 경기장인 오라클 아레나의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골든스테이트가 손쉬운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정상급 빅맨 앤서니 데이비스가 버티고 있는 뉴올리언즈 또한 피닉스를 제압할 것이라는 예상이 73.84%를 기록했다. 시즌 개막 후 4연승을 이어가던 뉴올리언즈는 최근 6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분전하고 있지만, 유타, 덴버, 골든스테이트, 포틀랜드 등 경쟁한 팀들을 연이어 만나며, 연패의 수렁에 빠져있다. 희망적인 점은 상대팀인 피닉스의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피닉스는 현재 2승8패로 15위를 기록하며, 서부지구 순위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댈러스와의 개막전 승리 이후 지난 4일 댈러스를 상대로 겨우 두 번째 승리를 기록했을 정도로 경기력이 하락해있다.

케이토토 소액 구매 캠페인 ‘소소하게 즐기는…’ 시즌 2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가 오는 12월 9일까지 건전구매 캠페인의 일환으로 온라인 이벤트 ‘소소하게 즐기는 소소한 행복’ 시즌2를 본격 전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이벤트인 ‘소액/소조합으로 건전하게!’의 경우 고정배당률게임인 프로토(PROTO)에서 소수 경기(2~3경기) 및 1만원 이하의 조합으로 구매하면 벤틀 500개를 증정하며, 구매한 게임이 적중했을 경우 자동으로 경품에 응모하게 된다. 벤틀은 1인 1회 증정되며, 12월 12일(수)에 일괄적으로 적립된다. 경품의 경우 적중횟수에 따라 당첨 확률이 높아지며,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롯데시네마 영화예매권과 1500명에게 롯데리아 볼고기 버거 세트를 선물한다. 두 번째 이벤트 ‘소액/소조합으로 건강하게!’에서는 건전구매 캠페인 동영상 시청하거나 배경화면을 다운로드 받으면 벤틀 500개가 주어지며, 참여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파riba게트 1만원 교환권(500명)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700명)를 증정한다. 교환권은 12월 12일(수)에 기프티콘 형태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엄천호